

바위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리인 정기로 맞아낸 인걸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제857호

장학생 선발에 ‘붕어빵 스펙’ 적용 논란

스펙쌓기 과잉경쟁에 학생들 내몰아

학생복지과가 교내 장학생 선발시 취업전략본부 경력관리프로그램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력관리프로그램은 학생의 학과 성적, 자격증, 외국어성적, 봉사활동, 해외연수, 인턴십, 지도교수면담, 수 상실적, 정보화능력, 기타경력 등을 ‘경력점수화’해 학교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다. 학생복지과에서는 앞으 로 교내장학생을 경력점수를 기준으 로 선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력 점수 항목이 총 10개에 달해 학생들 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력점수는 학과특성상 필요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지만 대부분 학과에서 1~3 개만 제외하고는 모두 경력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은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찬(경제 3)씨는 “경력점수로 정학생을 뽑으면 장학금을 받기 위

한 항목이 너무 많아져 크게 부담될 것 같다”며 “취업시 개인적으로 필 요없는 항목도 장학금을 위해 일률 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선 안될 것”이 라고 말했다.

경력점수 항목이 졸업반에 가까 울수록 축적될 수 있어 저학년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성선(사학 1)씨는 “1학년이 경 력점수의 항목을 모두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저학년을 고 려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양씨는 “모든 교내 장학 생을 경력점수로 뽑기 보다는 경력 점수의 항목을 나눠서 따로 장학금 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 다.

이와 함께 장학금까지 경력점수로 수여하면 대학이 진리탐구라는 본질 을 벗어나 학생들의 취업능력을 키 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 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강봉수(윤리교육) 교수는 “취업 을 위해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

만 대학이 존재하는 의의는 취업생 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진리 탐구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장학금 을 경력점수에 따라 수여하면 대학 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복지과에서는 학생들이 피해 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조율해 나가 겠다는 입장이다.

윤성훈 학생복지과장은 “경력점 수가 취업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 게 필요한 교육적 소양을 포함한 중 합적인 점수로 판단해 교내장학생 선발시 반영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경력점수로 장학생을 뽑으면 학생 들이 취업관련 경력을 쌓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는 “갑자기 장학기준이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기준은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인만큼 앞으로 대학 당국이 나 서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 청회나 설명회 등을 마련해야할 것 으로 보인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와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13개 대학 학생들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귀덕리 해안에서 해녀체험을 하고 있다.

<국제교류센터 제공>

“제주 전통문화 체험하니 신나요” 해외교류대학 47명 문화탐방

“풍성한 제주 문화 체험, 제주와 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제주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한 해외 13개 대학의 학생들이 단 기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및 제주 문화를 체험했다. 일본인 29명, 중

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4명, 러시

아인 2명 등 총 47명의 학생이 참여 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일 일교

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이뤄졌다.

해외 대학 학생들은 지난 9일 레 벨 테스트를 거쳐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현장 학습과 한국문

화 체험을 받았다. 특히 해녀 체험

과 거문오름 탐방, 승마 실습은 이

들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불

거리를 선사했다.

이밖에도 한복 입기와 국궁 체

험, 전통 탈 만들기 등이 진행돼 학

생들이 한국의 우수하고 유려한 문

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중국 대련민족대학교 한국 어 전공)씨는 “한국어 실력도 늘

고, 제주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는 점에서 2주간 많은 수확을 거뒀

다”고 말했다.

김소영 수습기자

제주대, 태양광발전소 건설

대학 건물옥상 활용 무공해 전력 생산

제주대가 국내 최초로 공공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제주대는 지난 17일 한국중부발 전(사장 남인석)과 학교건물 옥상 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총장실에서 체결했 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라캠퍼스 건 물옥상 18개동 약 6350㎡ 부지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태양광발전소는 겨울방학기간 인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3월 완공 될 계획이다. 투자비는 47억원으로 추산된다.

태양광발전소는 하루 3561kWh 에 달하는 무공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총 130만 kWh 규모다.(이용율 14.27% 기준) 이는 43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를 연간 약 791t 감축하는 효과 도 볼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대는 18개 동 옥상과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에 따른 부지·시설물의 사용 및 각종 인·허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사업 추진 및 발 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 담하게 되며, 발전소 준공 후 15년 동안 발전소 운영과 수익·유지 관 리를 하게 된다.

국제 교류수학생 선발

오는 9일까지 123명 모집

국제교류센터(소장 강영훈)가 2012학년도 1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파견 교류수 학은 9개국 37개 대학 총 123명을 모 집한다.

지원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재 학생(단 남은학기가 1학기 이상), 성적평균 평점이 학부생은 2.7 이상, 대학원생은 3.0 이상이다. 이밖에 각 대학별로 요구사항이 있다. 학점은 이수한 성적 학기당 18학점, 계절학 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선발은 해당 필요 언어 공인성적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이며, 학점인정은 이수한 성적 학기당 18학점, 계절학기 6학점 범 위 내에서 인정한다.

재수강 신청시 대체과목 개설 안돼 발만 동동

타대학, 대체과목 없을시 학점포기 가능

해당시스템학과와 한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다가 당혹감을 느꼈다. 지 난해에 이수했던 과목 중 학점이 잘 나오지 않은 과목을 올래 재이수하려 고 봤더니 해당 과목이 없어진 것이 다. 담당학과에서는 “내년에 다시 개 설될 것이니 그때 재이수하라”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교과과정 개편 때 대체과목 없이 사라지는 과목이 있어 학생들이 불편 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점을 다 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모 든 과목에 대해 재이수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재이수 할 과목이 사 라져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이다. 법학과와 한 학생은 “재이수하 려고 했는데 과목이 없어 재이수 못 하고 좋지 못한 학점 그대로 안고 졸 업하게 됐다”며 “학점은 평생 남는데 이것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생긴다’ 는 말만 믿고 기다리며 졸업을 유예 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학사과에서 과목개 편을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교무과에 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 교무과의 임 애숙씨는 “과목마다 담당하는 학과

가 있는데 과목이 폐지되거나 변경되 면 담당 학과에서 알려주고 우리 부 서에서는 그것들을 정리한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 인문대학의 한 조교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안식년 제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면 과목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기 수강과목과 관련해 교 무과는 학과에 의존하고 학과는 교 수에 의존해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 전에 들 었던 과목도 운에 따라 이듬해에 재 이수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덕성여대의 경우 교과과정 개편으

로 재수강 해당과목이 없는 경우 기 존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강원대도 재이수를 원하는 교과목이 교육과정 의 개편으로 없어서 졸업 최종학점이 지 재정이 안 될 경우 취득학점을 포 기할 수 있다. 이는 과목개편으로 인 해 성적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학과와 한 학생은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면 만점에 가까운 졸업 성적을 취득 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높 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입시기획 - 대학은 제대로 가자 ▶ 6면 해외취재 - 몽골인의 삶과 문화 ▶ 6면 수습기자모집 - 제주대신문 제작과정 ▶ 8면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JEJU 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제1기 모집요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자격 부여 (주최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합격 시 국어 기본법 19조에 의거 재외동포나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3급)자격이 부여됨

1. 모집인원 : 40명

2. 지원자격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직전학기까지 60학점 이상 취득자 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 라, 외국인인과 다문화가족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자 다,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 전형함.

3. 교육기간

2011. 9. 10(토) ~ 2011. 12, 17(토)(15주, 120시간)

4. 원서접수 : 2011. 8. 13(토) ~ 8. 27(토)

5. 등록

가. 등록기간 : 2011. 9. 1(목) ~ 9. 7(수)

나. 등록금 : 880,000원

다. 등록방법
계정입금 → 계좌번호 : 954-01-024748은행 : 농협, 예금주 : 제주대학교 100-027-462388(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제주대학교)
입금지명은 '성명 휴대폰번호' 4숫자(예 : 홍길동1234)로 입력하며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할 시에는 행정실로 전화 요망

6. 수업인원

2011. 9. 10(토) ~ 2011. 12, 17(토), 13:00 ~ 19:00(6시간/토요일)

7. 교육과정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nu.ac.kr/index.asp)참조

2011학년도 제2학기 일반교육과정 강좌 개설

■ 학력인증 프로그램	
과목번호	과목명
201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2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3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4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5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6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7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8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09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0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1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2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3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4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5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6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7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8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19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220	영어회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

사 설

증자(曾子)의 ‘삼성(三省)’

우리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상대적임을 경험적으로 안다. 어떤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기도 하고, 반대로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탄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쏜 살 같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길이와 폭에는 인생의 시기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어쨌든 하루 24시간의 절대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것은 매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 이리라. 《논어(論語)》<학이(學而)> 제4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의 몸을 살피나니(吾日三省吾身),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해 줌에 충성스럽지 아니한가?(爲人謀而不忠乎), 벗과 더불어 사귀에 성실하지 아니한가?(與朋友交而不信乎), 전수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였는가?(傳不習乎)” 이것이 바로 ‘세 가지로[三] 나의 몸을 살핀다[省]’는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이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일까. 어린 시절에는 학교 숙제, 또는 감상으로라도 일기를 썼고 거기에는 나름 반성을 통한 되새김이 있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 혹은 삶을 끌어안기 위해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는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스스로를 들여다 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어쩌면 밤의 분위기로 조금은 센티멘탈하게 약간은 나르시시즘으로 그것

을 즐겼을지라도, 그 성찰은 내면의 거울을 닦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점차 이른바 ‘바쁜 삶’ 때문에 반성과 성찰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죽으려 해도 시간이 없어 못 죽는다’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문명의 이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있어도,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시간은 진정 없는 것일까.

‘살필 성(省)’은 반성·성찰로 해석된다. 반성(反省)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켜 봄”이며, 성찰(省察)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대로라면 반성은 ‘언행’에, 성찰은 ‘마음’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카르트(Descartes)가 쓴 《성찰(Meditationes)》이란 책에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학문의 토대를 발견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의심에서 해방시키는 정신의 자기 성찰 과정이 담겨 있다. 언행이든, 마음 혹은 정신이든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의 표출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기대가,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 기대와 부담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보자. 일기를 통해, 다이어리를 통해 하루 세 가지가 안 되면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해보자. 아마 학기의 마무리에 성공적이었으리라고 쓰게 되지 않을까.

수강신청 일부 접속 안돼 대란 ‘여전’

타대학은 ‘장바구니 제도’ 도입

8시 59분, 58초, 59초, 그리고 9시. 컴퓨터 시계를 보며 숨죽였던 A군은 박태환에 뒤지지 않는 반사 신경으로 로그인버튼을 누른다. 그리고는 메모장에 미리 기록해뒀던 과목번호를 복사해 ‘Ctrl+V’ (붙여넣기)를 누를 준비를 한다. 집보다 인터넷이 빠르다는 PC방에 왔건만 어쩌면 일인지 수강신청 화면으로 바뀌지 않는다. 주위 학생들도 신경질적으로 ‘광클’(미지도록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한다는 뜻의 신조어)을 해보지만 허사다. A군은 ‘이번 수강신청도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다가오는 학기의 ‘학점쟁관’ 걱정이 엄습한다.

이는 지난 1일 수강신청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모습이다. 수강신청 문제로 학기 초마다 학생들의 고충이 여전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행정 측은 인터넷 회선 및 컴퓨터 사항 등이 문제라며 책임을 학생 개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고윤선(정치외교 1)씨는 “수강신청을 하려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반응이 없다가 이내 흰색화면만 나타났다”며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설치된 PC방을 찾았지만 일부 사람뿐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는 제 시간에 입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로그인 되는 컴퓨터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빌려 수강신청을 했지만, 원하던 과목을 모두 신청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수강신청을 제시간에 못하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생기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안기중 교수(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분야)는 같은시간에 접속하는 학생들이 많아 트래픽이 몰렸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트래픽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져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이 어렵다.

안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 개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 필요하다”며 “학번이나 학교 등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분수강신청 같은 학교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행정 측은 수강신청 대란의 문제가 학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원 담당자는 “로그인 자체 현상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 시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과 통신회사의 회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학교 시스템은 모든 재학생이 동시에 수강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강신청 문제에 대한 대학 측의 대응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대학의 한 학생은 “경상대학에는 복수전공자가 많아 수강신청을 하기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더 어렵다”며 “트래픽이 몰리지 않도록 수강신청을 나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김근영(수강신청 담당)씨는 “부분적인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며 “학번

별, 학과별로 나누어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을 배정 받거나 타 학과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타 대학들은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대는 1, 4학년과 2, 3학년으로 분리해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대는 올해 1학기 수강신청부터 ‘희망과목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수강신청 기간 전 학생들로부터 10과목을 미리 예약 받아 학생들이 간단하게 ‘예약’버튼만 클릭했다가 본 수강신청기간에 손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강원대 뿐만 아니라 연세대, 부산대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세대는 한 시간 전부터 수강신청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아이디로 다른 컴퓨터에서 중복 로그인을 하는 것을 막고 있어 로그인할 때 생기는 많은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

김명지 수습기자

인터뷰-박광열 송이산업 대표 이사

“성공 위한 도전, 제주라고 못할 것 없죠”



박광열 송이산업 대표이사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그 도전만으로도 좋은 경험 이 될 겁니다.”

박광열 송이산업 대표이사의 말이다. 그는 제주의 천연 화산석인 송이를 활용해 기능성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전도유망한 사업가다.

“북서는 맞는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죠. 북서처럼 맞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강조 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 실패를 두려워 해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박씨는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의 시대입니다. 발명·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부해야 합니다.”

박씨는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단순히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업동아리나 발명·특허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를 권유했다. 발명·특허 동아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쌓고, 창업동아리를 통해 사업 노하우 등을 배운다면 나중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업인들과 유대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제주지역은 이런 유대가 끈끈하다며 동아리 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창업,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는 다양한 자원의 보고예요. 그 자원들만 활용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없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산업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박씨는 제주의 시장규모가 작지 않고, 오히려 인구대비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에는 큰 기업들이 없어서 작은 기업들도 기회가 많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자원과 개성 있는 시장은 제주가 가진 강점이라며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해 제주산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2011 해외인턴십’을 떠나는 학생들이 지난달 21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열의를 다졌다.

대학생 호주, 싱가포르 해외인턴십

제주대 학생 31명을 비롯한 도내 대학생 35명이 해외 인턴십을 떠났다. ‘2011 해외 인턴십’ 발대식이 지난달 21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해외 인턴십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산업체 현장 실무 경험을 갖게 하고, 국제적인 마인드와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인턴십에서는 제주대 학생 11명을 포함한 15명의 학생들이 호주에서 10주간의 현지 어학연수와 20주간의 현지 유급 인턴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제주대 학생 20명은 싱가포르에서 3주간의 어학연수와 1주간의 현지 대학 및 기업 현장 실습을 한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5월 초 도내 각 대학에서 영어 구사능력이 출중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35명이 선별됐다.

재외도민 대학생 54명 ‘하계향토학교’

지난 1일 방문, 제주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자신들의 뿌리인 제주를 찾는 재외도민 대학생 54명이 제주의 자연 경관에 흠뻑 빠져 들었다.

제주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제개발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1 재외도민 대학생 하계향토학교’에 참여한 국내외 16개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제주를 방문, 제주의 역사를 배우고 제주 자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학생들은 첫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2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의 유배 역사’라는 주제로 양진건(교육대학원) 교수의 강의를 받

았다.

이후 서귀포항으로 이동, 제주대 해양실습선 아라호에 승선해 성산일출봉과 우도 등을 거치며 해양체험(조어 체험)을 하고 제주의 자연경관을 만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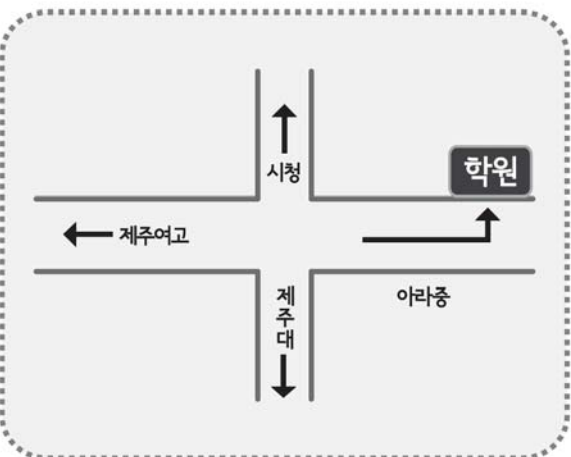
한편 ‘2011 재외도민 대학생 하계향토학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러시아 등 국내외 16개 지역의 재외도민 대학생들이 참여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제주에 대한 애郷심을 돈독히 했다.

김소영 수습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네비게이션’ 기법 인공관절 수술 성공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네비게이션’ 기법을 적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시켜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광우(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법을 성공시켰다. 이 수술 방법은 마치 네비게이션이 자동차의 목적지를 안내하듯 최첨단 기기를 이용, 인공관절의 위치를 안내해 보다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동차의 길 찾기처럼 인공관절의 이동 경로, 기

존 관절의 위치 좌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다 정확한 부위에 인공관절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의 관절구조 그대로 환자별 맞춤 인공관절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수술 성공률이 높아진다.

김상림 교수 ‘2011 히포크라테스상’ 선정

제주대병원 2·3대 병원장을 지낸 김상림(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미국인명정보기관(ABI)으로부터 의료분야에서 ‘2011년 히포크라테스상’에 선정됐다. 김상림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를 전공했고, 슬관절 및 인공관절성형술 관련한 수천례의 수술을 집도한 것은 물론 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해 이 분야의 대가로 꼽히고 있다.

또 제주대병원장 재직시 아라동에 병원신축사업을 추진했다. 또 제주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등 각종 전문센터를 유치해 국립대병원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상은 전세계 75개 국가에서 매년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100인을 선정하며, 김 교수는 탁월한 리더십과 진료업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김상림(정형외과) 교수

“환경보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희망 있어”

빗 속 뚫은 ‘빅스вим’ 참여 대학생들 봉사 열기

전날부터 내린 빗줄기는 13일에 더 굵어졌다. 하늘에 비구름이 잔뜩 낀 삼양해수욕장에 대학생 7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제주빅스вим(The Jeju Big Swim)’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제주빅스вим은 바다수영으로 해양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시작한 이 행사는 개인들이 만든 프로젝트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는 믿음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꿈꾸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처음 생 각한 호주 여성 세린 히버드(52)는 “우리 모두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가 느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불평만하다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크고 빠른 변화만 기대하며 모두가 손놓고 있으면 나중에 지킬 자연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빅스вим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으

로 모든 것이 진행됐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빨리 우비를 사와야겠어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행사 시각이 임박해질수록 비가 그칠 기미가 안보이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진행중 중 한명이 황급히 뛰어간다. 비와 땀으로 범벅된 모습으로 우비를 사온 진봉기(휴학, 건축)씨.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건데 환경캠페인에 일조하는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약전후라 행사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몇몇 어른들과 달리 이날 대학생들의 모습에선 여유가 보였다. 김봉주(초등교육 1)씨는 “날씨가 안 좋아서 참가인원이 줄어든 게 아쉽긴 하지만, 인원수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삼양해수욕장부터 함덕해수욕장까지 10km 구간 바다수영과 해안정화하며 걷기, 합덕해수욕장 1km 바다수영, 환경콘서트로 진행됐다.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통역부터 행사설명, 도시락 나눠주기, 콘서트를 위한 무대설치 돕기 등 원활



지난 13일 해양환경프로젝트 ‘빅스вим’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삼양-함덕해수욕장을 걸으며 해안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진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맨발로 해수욕장 일대를 뛰어다니며 참가자들에게 물을 나르던 김수민(법학 1)씨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의미 있고 즐겁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으로, 뮤지션들은 음악으로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며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뭉쳤다”는 점이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에서 환경콘서트가 이뤄졌다. 대학부터 행사설명, 도시락 나눠주기, 콘서트를 위한 무대설치 돕기 등 원활

김미진(화학 1)씨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힘들고 재미없는 일은 싫다”며 “사회를 위한 일이라며 ‘빠르게’ 희생하며 돕기 보다는 다함께 즐기며 행복한 상태에서 변화를 이끄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그들의 주도적인 진행으로 이날 제주빅스вим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치우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학생 특유의 열정이 보였다. 현성미 기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우리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호원 교수)이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해 기업을 만들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대학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주대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개 대학(가톨릭대, 삼육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가운데 가장 많은 2년간 4억원(총괄책임자 현명택 교수)을 지원

받는다. 이는 공모한 대학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결과다. 지원금에 학교출자금까지 더해 총 8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교가 특어나 지식재산권 등을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준호 성과관리팀장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학생들이 인턴ships 받을 수 있고, 졸업생 채용으로 청년실업 해

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대학의 연구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의 배당금이 학교의 연구를 위해 쓰여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또 다시 지주회사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4월 기준으로 490건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작년 5월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단과 기술이

전센터를 설치해 지주회사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간 2억원 규모의 벤처투자기금을 적립해 2014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기업이나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학이 100% 출자해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금 전국에는 서울대, 부산대, 한양대 등 10여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설립돼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는 정보통신분야, 건강식품분야, 증강현실분야의 6개 자회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김명지 수습기자

부속시설 탐방 <6> 재일제주인센터

“고향 위해 헌신한 재일제주인 우리가 도울 때”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의 심한 경제수탈이 이어지자 삶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제주도민들은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으로부터 멸시받는 고된 삶 속에서도 제주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온 재일제주인들. 대학과 제주에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그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곳이 있다. 바로 인문대학 1호관에 위치한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 일어일본학과 교수)이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지난해 8월에 설립돼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재일제주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난 2004년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에서 시작된다. 이와 함께 김장인 회장과 같은 자수성가한 재일제주인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재일제주인 센터의 설립과 문화교류관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재일제주인의 업적을 기리고 연구하자’라는 취지로 운영되는

센터는 재일제주인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재일제주인에 현재 재일제주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재일제주인에 대한 어떤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연구매뉴얼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사는 재일제주인 2.3세대들이 제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재일제주인들을 찾아 제주의 언어나 역사, 문화 등을 재일제주인들에게 소개해 그들에게 제주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5월 27일에는 문화교류관이 문을 연다. 문화교류관은 재일제주인의 삶과 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 그들의 공적을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재일제주인이 해왔던 노고를



이창익(일어일본) 재일제주인센터장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며, 제주사람은 물론 관광객과 재일제주인들도 자유롭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창익 재일제주인센터장은 “현재 제주 사람들은 재일제주인들이 고향을 위해 해왔던 일을 망각하고 동향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일제주인들이 보여준 애환심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수습기자

뉴스 클리핑



제주수자원연구단, 수자원본부와 물산업 협약

제주대 제주수자원연구단(단장 양성기 교수)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찬종)가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수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물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수자원 관련 연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제주도민에게 더욱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수자원연구단장 양성기 교수(토목공학과)는 “도내 수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활기찬 제주 물 시대를 이끌어 나갈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돈 교수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이영돈(해양과학연구소) 교수가 ‘제9회 어류번식생리학 국제 심포지움’에서 생식주기 및 번식 행동 분야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30여개국에서 190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이 교수는 ‘외부사양관리에 의한 흠바리 생식소 발달 유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발표상을 수상

했다. 한편 어류 번식생리학회 국제심포지움은 지난 1977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돼 4년 주기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영돈 해양과학연구소 교수

제주유나이티드, 청소년 체육캠프 방문

제주 유나이티드 FC 감독과 선수들이 제주대에서 진행한 청소년 체육 캠프에 찾아왔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2011 제주대학교 청소년 체육캠프’에 찾아와 법정대학 중기 강당에서 팬자랑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캠프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학생들과 도내 팬들이 참여,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한편 ‘스포츠 즐겨찾기’라는 이름의 이번 캠프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자 체육학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제주대와 삼양해수욕장에서 진행한 캠프다. 양명환 교수(사업책임자)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대학 봉사단이 지난 18일 동문재래시장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호대학 봉사단, 동문재래시장 의료봉사

간호대학(학장 이은주)이 교수, 재학생, 졸업생 등으로 건강증진지원봉사단을 구성, 재래시장에서 의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단은 지난 18일 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중앙로와 중앙 지하상가 등에서 상인들의 건강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협업 및 혈당 체크, 고혈압, 당뇨 병, 뇌혈관질환, 골관절염, 우울증 등의 예방과 관리를 돕게 된다.

행정대학원-와세다대

학술교류 심포지엄

행정대학원(원장 고정영)과 와세다대학 공공경영대학원(원장 타카요시 에가미)이 지난 22일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5차 학술교류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와세다대학교 히사오 츠카모토 부원장이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동향’, 고창훈(행정학과) 교수가 ‘통일한국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발표했다. 토론과 질의에는 타카요시 에가미 원장과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행정대학원과 와세다대학 공공경영대학원은 양 대학원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술교류는 매년 2회 열리며 각 1회씩 제주대와 와세다대에서 개최된다.

가파도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서귀포 칼호텔 등 제주도 전역에서 ‘불턱’ 관련 포럼·문화제를 개최했다.

포럼은 ‘아시아 문명을 위한 녹색성장, 평화문화와 트레빌리즘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조화 모색의 피스 아일랜드 이니시iativ’를 주제로 열렸다. 또 문화제는 해양 음악제, 전통 잡녀 춤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보배 기자

현동걸·신애경 교수 우수논문상

현동걸(초등과학교육)교수와 신애경(초등과학교육)교수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현 교수와 신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2011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류와 자기장 관련 실험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공동 발표해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편 두 교수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으며 다음 세대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현동걸 초등과학교육 교수



신애경 초등과학교육 교수

특히 현 교수는 2010 학술대회에서 ‘전자의 연결에서 전자의 내부저항과 부하저항의 상대적 크기와 전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센터장 정승달)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읍면동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제3기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학교실은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농도서관 △조천읍 조천읍주민자치센터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한림읍 한림청소년문화의집 △한경면 한경도서관 △제주시 벤치마루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청소년수련관 △남원읍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성산읍 성산일출도서관 △안덕면 안덕청소년문화의집 △표선면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송산동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홍동 삼매봉도서관 △대륜동 대륜문화의집 △애래동 애래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열린다.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은 주 1회 1시간씩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모양젤리 만들기, 천연 모기약 만들기, 부풀어 오르는 케이크 만들기, 손 세정제 만들기, 천연 발레연고 만들기, 짝짝짝 쥐들이 만들기 등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학 만들기들이 있다. 이와 함께 지문 찾기, 왕영 청초기, 이온의 치환, 바코드 속의 비밀 등으로 실험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강보배 기자

대약은 제대로 가자 입시&장학 가이드

입시·장학제도 변화를 알자! 교환학생 활용해 외국어는 기본, 문화이해 쑥쑥



누나, 언니 공금해요~

도전이 : 제주대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들 어갈 수 있나요?

제주대 신입생 모집은 크게 수시 1차, 수시 2차, 정 시 3차례에 걸쳐서 이뤄져요. 얼마 전 수시 1차는 선 발인원 153명에 615명이 지원, 평균 4.0대 1의 경쟁률 을 기록했어요. 우리대학에서는 처음 입학사정관전 형으로 수시가 이뤄졌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신입 생을 선발하는 글로벌미래교사 전형은 평균 4.3대 1, 전 모집단위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장추천자 전 형은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또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시 2차가 진행될 예정 이예요. 수시 2차에서는 정원내 384명, 정원외 267명 등 총 651명을 뽑을 계획이죠. 전형유형은 일반학생, 취업자, 예체능특기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농어촌학 생, 특성하고 출신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로 이뤄집니다. 특히 이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기회균형선발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이뤄지니까 명 심하세요!

아참, 이번 수시에 특성하고 출신자 전형이 새롭게 생겼어요. 특성하고 출신자 전형은 특성하고와 마이 스테고 출신 학생들이 취업 후 진학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죠. 이렇듯 다양한 전형이 이뤄지니까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 지원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입학관리과(754-2043~4)나 제 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ac.kr)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도전이 : 제주대에 장학혜택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신 입생들을 위한 장학 혜택은 없나요?

제주대는 신입생들에게도 다양한 장학혜택들을 제 공합니다. 먼저 입학성적 우수장학생은 전체수석 1 명, 단과대학 수석·차석 각 1명, 학부(과)별 각 1명 에게 전액면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입학 정원에 따라 각 전공별로 인원을 배정해 입학금과 수 업료 면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전체 수석, 단대 수석·차석, 수능시험 인/수/외 영역 모두 1등 급, 체육/학술/예술 국제규모 경시대회 3위 입상자는 직전학기 평점 2.7을 넘기만 하면 4년간 장학금은 물론 특별장학금으로 월마다 일정액을 제공하고 있어 요.

이외에도 제주대에 형제자매를 두고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인 이상의 가 족이 다닐 경우 B급 1개와 C급 1개를 장학금으로 주 고 있죠. 2인일 경우도 C급 1개를 지급해요.

특히 올해부터 제주대가 수시모집전형에서 선발된 학생 중 ‘교포 자녀’와 ‘소외계층 학생’에게 처음으 로 ‘미래희망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제주대가 그동안 재일본 제주출신 교포들로부터 많은 발전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교포 자녀들을 위 한 교육사업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 러한 결정을 내렸죠.

또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고교를 졸업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대학 장학금과 생활관비를 지원해 사 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 도록 지원했답니다.

도전이 : 제주대에도 복수학위제나 학생교류 등 다양한 학사들이 마련돼 있나요?



제주대의 비상을 바라며 사슴상 앞에서 힘차게 뛰어오르는 학생들.

제주대는 교직과정, 연계전공, 복수학위제, 학생교 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직과정은 지난해 기준 총 36개 학과에서 128명의 교직과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연계전공은 21개 전공이 개설돼 있습니 다. 복수학위제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5개 국 13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학생교류도 서 울대, 중앙대, 경희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뿐만 아니 라 국외 19개국 115개 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이 맺어 져 있습니다.

도전이 : 글로벌 시대잖아요. 다양한 해외경험을 쌓고 싶어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소개해주세요.

물론 제주대에 오면 다양한 해외경험도 쌓을 수 있 습니다. 먼저 아라인제 해외 학술교류 협정대학 교류 수학생 파견. 이 프로그램은 제주대를 우수한 성적으 로 들어온 학생들 중 1학기 수료 후 평균평점이 3.4이 상인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교류수학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 이내의 연수 경비를 지원하 는데, 전체수석은 3000만원, 단과대학 수석은 1000만 원, 단과대학 차석은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유학 프로그램(교환학생)과 단기교 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유학 프로그램은 제주 대와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 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능 력을 갖추고 있다면 수업료와 항공료 일부를 지 원받으면서 영어권,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대 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기교류 프로그 램은 앞과 마찬가지로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에 방학 기간 2~3주동안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도전씨 그건 말이에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평점 3.0이상과 외국어 소통능 력만 있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 꼭 한 번 신청해 보세요.

또 테마별 세계교육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 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팀을 짜 직접 여행 목 적과 계획을 세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교육기행은 여행의 목적과 효과, 학생들의 수행 능력 등을 계획서와 면접을 통해 평가해 선발합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 전해보세요.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 답니다. 또 취업전략분부를 통해 다양한 해외인턴십 도 도전할 수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업종에 인턴십도 노력해보세요. 각 프로그램마다 지원금액이나 연수기 간들은 차이가 있어요.

도전이 : 대학의 낭만, 제주대 동아리들에 대해 알고 싶 어요!

대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동아리 죠. 우리대학에도 많은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연합 회에 등록된 인준 동아리만 46개! 참여학생수도 1400 명에 달할 뿐만아니라 전시창작, 공연예술, 체육, 교 양봉사, 학술, 종교문화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또 각 학과별 특성을 살린 분과 동아리들도 있어요.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취업관련 동아리나 학습 동아리 들도 많이 생겼어요. 취업전략분부와 기초교육원이 라는 부서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관련 공부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강보배 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서”

글 / 김순재(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림 / 고아라(특별기자)

⑦ 무심먹다.

너 이번 수시 어디 썼나?

글씨, 어떻게 해야 할지.

무사 돈박 서열로만 돈젠 형신고?

전 제주대학교 선택했는데요.

대학발진이 곧 제주발전 이니까요.

무사! 에라는 공부도 잘하면 허멍?

기어, 모든 건 무심먹기에 돌렸어

그래, 나도 제주대학이다!

기어, 모든 건 무심먹기에 돌렸어

▶날말풀이

무사: 왜. 돈박: 몽땅 서열: 서울

돈젠: 달리려고 형신고?: 하고 있는가?

잘현덴: 잘한다고 허멍?: 하면서?

기어: 그래 무심먹다: 마음먹다

돌렸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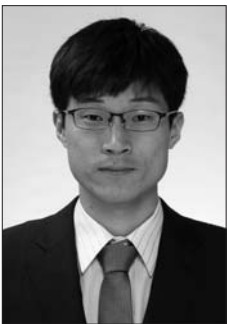
인터뷰-대학생활을 열심이 보낸 사람들

“많이 보고 느끼는 현장공부가 중요”

양새벽 외교통상부 서기관

지난 2009년 제주대 최초의 외무고시 합격자로 기록된 양새벽(외교통상부 서남아 태평양과 근무)씨. 양씨가 술탄 고시 합격 생 가운데에서도 유독 빛을 내는 이유는 비 단 최초라는 수석이 때문만은 아니다. 평범 한 제주대 학생의 꿈이 결국 궁극의 마인드 를 통해 이뤄졌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씨는 별다른 것 없는 가정환경, 지방대 학생들이 종종 겪는 열등감 등의 환경을 가 졌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처음 입학했을 때 에 그는 이러한 생각때문에 입학 초 힘든 시 간을 보냈다. 그러던 그가 그의 길을 찾은 건 군대에서 배식을 하다가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듯 국가별로 자원을 알맞게 배분하 는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한번에 생긴 것은 아 니다. 그의 부모님은 감귤밭 농부이자 오일 장 상인이었다. 그는 종종 밭으로 가 감귤 따는 것을 도와드리고 오일장으로 찾아가 옆에서 장사를 거들며 부모님의 일손을 도 왔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국민의 일손이 되 어 보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에 입학해 직면했던 여러 환경들이 외 교관의 꿈을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 다.” 그는 외교관이라는 꿈을 품고 복학했을 때 ‘제주대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많 구냐’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가 바 로 복학해 외무고시 준비에 뛰어들 건 아니 었다. 그는 일단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다.

특히 그는 중앙도 서관 서가를 자주 찾았다. “도서관 서가 에 꽂혀있는 책들 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 습니다. 법정대학 공부방에서 부족 함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며 책을 읽 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며, 학과 공부 뿐만 아니 라 내 바로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 나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한다. 그 다짐 때문이었을까. 그는 대학을 졸업하며 학위 수여식에서 총장상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외교관이 돼야겠다는 다짐 을 했다고 해서 책만 읽거나, 학과공부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학생 전국 모 의유엔대회, 안보토론대회 등에 참가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책상에서 하는 공부도 좋지만 현장에서 하는 참공부도 중요합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룬 양새벽씨.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목 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언제나 고민 하고 뜨거운 가슴 간직한 외교관이 되는 것 이 그의 확장된 목표다.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용량을 조금씩 넓혀 가 면 됩니다.” 김명지 수습기자



정치외교학과 99학번 양새벽

고민정 토익어학원장

제주도내 토익 학원 중 최고의 인기를 자 랑하는 고민정 토익학원. 그곳의 원장 ‘고 민정(영어영문과 95학번)’ 동문을 찾았다. 처음 그녀를 대면했을 때 그녀의 환한 웃 음에 학원 내부가 유난히 따뜻해 보임을 느 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겁다는 그녀는 실로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시련, 고난과 같은 말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을 누리기가까지, 그 녀의 인생은 줄곧 실패의 반복이었다. “영문과 입학 후, 생각해 놓은 꿈이 없어 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소위 ‘잉여’가 돼버 렸어요.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내보내 받아 주는 데가 없었죠. 지금은 이렇게 학원까지 차리는 행운을 얻었지만, 돌아켜 보면 목표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그녀는 시종일관 ‘목표’를 설정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대 학생들은 특히 욕지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목표 없이 토익이나 자격증 같이 전형적인 스펙 쌓기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를 각성해야만이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성 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틀에만 얽매지 말고 여러 가지를 시도 해 봐야 해요. 그러면 결국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확고하고 능동적 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시도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녀는 제주대만 해도 활용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 다고 말했다. 국립 대인 만큼 이런 프 로그램들을 무료 로 혹은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 가 많은데 이를 아 는 학생이 많지 않 다는 점을 안타깝 게 여기고 있었다. “찾아보면 학 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이런 기회를 몰 라서 또는 귀찮아서 날려버린다는 건 바보 같은 것이예요. 심본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 20대는 무엇보다 무언 가를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이심대는 실패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기 엔 너무 이른 시기예요. 그 실패들을 바탕으 로 하나의 확고한 목표를 찾아낸다면, 그건 이미 실패가 아닌 성공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어땠 것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학생들을 위한 지킴을 알려주 는 그녀의 눈은 지치지도 않고 반짝반짝 빛 나고 있었다. 정말 그녀의 말을 따라 목표를 찾고 그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찌 면 우리의 미래도 그녀의 눈처럼 환하게 빛 날 수 있지 않을까. 기자는 문득 그런 생각 이 들었다. 김소영 수습기자



영어영문학과 95학번 고민정

“학교 프로그램 통해 취업에 성공”

강승리 삼성전자 입사

지난해 12월 강승리 동문(중어중문 03학 번)은 졸업식을 올리기도 전에 높은 경쟁률 을 뚫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대학생 티를 벗기도 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딘 그는 “제 주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대 란 속에서 더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제주대의 취업프로그램이 타 대학과 비 교해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한 강승 리 동문. 그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제공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 다”며 “교환학생프로그램, 해외연수, 면접 법과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제주대의 손길 이 안닿은 데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설렌다는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경험을 했다. “전공이 중어중문학이라 중국에 교환학 생은 꼭 가고 싶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만 만지 않아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때 학과 선배로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 용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는 선배의 조언대로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중국전진외국어대학에서 1년 을 수학했다. 타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그는 중국전진외국어대학에서 유학생회장 까지 역임했다. “제주대 출신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갈 때 는 더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제주대가 ‘제주섬’에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 기 가었는데 실은 오히려. 외부의 많은 사람들

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곳이 제주 라, 제주대에선 다양한 인맥을 형 성할 기회가 훨씬 많았죠.” 강승리 동문은 중국 유학 후에도 학교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을 거 의 다 활용했다고 한다. 방학에 배 낭여행을 가고 싶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테 마별 세계테마기행’에 참여해 일본을 다녀 왔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 캐나다에 어학 연수를 갔다. 다양한 해외 체험 후에는 그 곳에서 배웠던 것을 백본 활용해 학교에 오 는 중국유학생들을 위한 도우미로 활동하 며 어학연습을 꾸준히 했다고 한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도 어느 학생처럼 4학년이 되자 취업불 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면접,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대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 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돈 한 톨 안들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게 많은 20대. 그는 ‘소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으로 연결되는 데 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캠페스 안에서 제 꿈은 영글었기에 저는 제가 청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현성미 기자



중어중문학과 03학번 강승리

통일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교육적 실천 절실

학술기고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통일은 숙명적 과제다. 통일이 불가능한 꿈의 영역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로 여겨지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가 봇물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통일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아닌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었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중헌 교육대학
윤리교육 전공

둘째,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해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의 북한이해 정도는 우려할 만하다. 특히 2000년을 전후로 그 이전까지의 정치 제도적 접근을 대신해서 사회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보편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실제로 2010년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29세 가운데 장마당,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아리랑곡전, 천리마운동,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72.2%, 57.1%, 48.6%, 46.9%, 35.3%, 2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20대의 북한 인지도 조사결과

는 2009년에 비해 조금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셋째, 통일문제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20대는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8%를 차지함으로써 통일의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일문제를 점점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이 개개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대해 점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은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 통일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 3가지 영역의 유기적 조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관련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을 확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011년 6월 현재, 조사 대상 31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절반 정도의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양 강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전공 중심의 강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된 학제적 교육 과정이나 공동 프로그램을 개



지난 7월 29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통일교육을 검토하는 통일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발·적용하는 것도 대학 통일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교수 중심의 강의식 방법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장탐방이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판문점, 통일전망대, 제3땅굴 답사나 최전방기행 등을 포함하는 (가칭)통일문화대장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를 개인의 삶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개괄할 수 있는 내용체계를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편협한 시각 합리성에 매몰된 단기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합적 안목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남북한 통일은 개인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단지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의 접근이나 경제학적 가치에 근거한 사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통일문제는 국가 및 개인의 이익과 결부된 실리적 현실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의미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당위적 차원, 인도적 차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개인, 국가, 국제사회와 상호 관련된 복합적 과정보다 이해하는 체계론적 조망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인

터넷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가운데 신뢰할 만하며 유의미한 것들을 취사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치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와 대화하듯 행간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같은 태도가 인터넷 상의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피상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적 토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학문적 탐구에 전력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기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생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통일논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요청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준비와 노력이다. 이점에 있어 대학교 예외일 수 없는 바, 통일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의 회복과 교육적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대학생 평화·통일의식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9), 「2009년도 청년통일의식조사」; 박명규 외(2010),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변중헌(2010), 「대학 통일교육의 역설과 활성화 방안」, 「윤리연구」제78호;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0), 「2010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아프다고 청춘은 아니다

서평

‘좌우파사전’으로 2010년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이건범은 시작장에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 83학번으로, 흔히 386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다. 대학시절에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두 번 투옥된 일이 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교육사업에 뛰어들어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CEO가 되었다. 하지만 2006년초 수습역원의 부채를 안고 회사 문을 닫았다. 그리고 2010년에 13명의 공동집필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적 쟁점을 좌파와 우파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정리해낸 ‘좌우파사전’을 내놓았다.

그런 그가 최근 ‘내 청춘의 감옥-시대와 사람, 삶에 대한 우리의 기록’이라는 신간을 내놓았다. 본래 이 책은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징역’의 일상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가 개인적인 공간에 올려놓은 글을 징역 경험을 가진 주변의 운동권 선배들이 한마디씩 댓글로 거들면서 본격 연재되었고, 결국에는 단행본으로 나왔다. 그는 이 글을 올린 페이스북의 아이디를 ‘thistiger(이건범)’라고 할 정도로 해학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몸살 사회가 감옥을 권한다면 명랑하게 즐겨 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그 몸살 사회와 감옥의 이야기를 ‘깁털대면서’ 읽는 것은 점잖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화자의 시선(視線)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화자는 으레 두 개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본다.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과거를 좀 더 자독하게 힘들었던 것으로 과장해서 기억한다. 이에 비해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과거를 좀 더 행복했던 것으로 포장해서 추억한다. 물론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를 좀 더 낙관적으로 추억하거나, 반대로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를 낳은 과거를 더욱 뼈아프게 반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글을 읽노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특히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치열하게 살았다는 사람의 회고록은 대개 엉망무늬 아니면 고백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대의명분이



내 청춘의 감옥
- 시대와 사람, 삶에 대한 우리의 기록
이건범 지음

나 피해의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한에서는 몰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서인지 이 책을 대하기 전에는 김지하 시인이 겹쳤다. 시인이 생명과 울려서 상으로 전환하면서, 그를 뒤따르던 후배들은 ‘김지하가 변절했다’고 생각했다. 오죽하면 ‘아무래도 시인의 머리는 민주주의를 잊은 지 오래인 모양이다. 하여,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으로, 네 이름을 이렇게 지운다. 김지하!’라는 패러디가 나왔겠느냐는 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는 과거의 미성숙했던 결정, 그에 따른 회한과 변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작가가 회고하는 시대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도 검색이조차 찾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쾌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위로 대신, 담담하면서도 해학적으로 자신의 청춘을 드러내 놓는다.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 ‘방황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이라고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나도 그랬다. 아니 더 그랬다’는 식의 위로가 언제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70년대와 80년대의 청춘보다는 이 시대의 청춘이 더 아프다. 하지만 ‘그러니까 위로를 해줄게’라는 식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건범처럼 골메체(滑稽美)에 넘치는 작품 한 편을 쓰고, 그것을 읽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우선 그가 던지는 웃음에 흠뻑 빠져 즐기라. 충분히 즐겼으면, 그 웃음 뒤에 희실을 적시하라.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발견했다면 참여하고 연대하라. 그게 청춘이다.

김치완(철학과) 교수

평생교육원, 척추교정 ‘카이로프랙틱’ 무료강좌 성황

대체의학으로 질병을 다스린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지금,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원장 안성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해 제주지역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 어떤 이색강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자.

<편집자주>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이렇듯 오랫동안 좌식생활을 하게 되면 디스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업무를 보면서 다리, 컴퓨터 작업으로 숙인 고개 등 나쁜 자세로 인해 목, 어깨 결림, 허리통증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평생교육원에서는 방학동안 직원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고, 디스크 예방은 물론 건강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자세교정’ 수업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건강과 자세교정’ 수업시간.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평생교육원 강의실은 직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다. 업무가 끝난 후라 집에 들어가 쉼 쉬고 싶을 텐데 직원들의 표정은 한껏 기대에 차 있었다.

바로 카이로프랙틱과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수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일반 사

람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체요법 중 하나다.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즉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의사의 손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다. 척추를 비롯한 뼈나 관절, 그리고 근육을 손으로 만져서 뇌와 장기 사이의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설을 통해 만들어진 대체요법이다.

‘건강과 자세교정’ 수업을 진행하는 고영만(세계합법 건강교정원 원장)씨는 “오랫동안 의자에서 생활하지만 바른 자세를 하고 있지 않아 척추나 골반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카이로프랙틱은 이러한 자세를 교정해 줌으로써 어깨, 허리 통증 등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병의 근본원인이 되는 잘못된 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줄이는 것이다. 의사의 손으로 관절과 근육을



평생교육원 강의실 안이 카이로프랙틱 활동을 통한 자세 교정을 받는 직원들의 열기로 뜨겁다.

정확하고 빠르게 자극해 신경의 기능을 수기치료법으로 치료한다. 이와 함께 환자마다 운동치료, 몸에 맞추는 보조기치료, 장비치료, 기타 여러 가지 식이요법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대표적인 치료는 잘못된 자세 혹은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으로 어긋난 척추 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놀려 있던 신경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통증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고씨는 “항상 앉을 때는 바른 자세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는 기가제 등을 통해서 몸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스크 치료를 자세교정보다는 수술을 통해 치료하려 한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도 자세가 여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카이로프랙틱은 자세 교정을 통해서 병을 치유

하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적다.

그는 “자세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술을 통해 치료했을 경우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세교정을 통해 치유하게 되면 이러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과정에는 고영만 원장이 직접 자세교정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도 있었다. 수강자들은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진창남(교육대학 중앙도서관 분관)씨는 “처음에는 치료과정이 아프고,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며 “하리 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자세교정이 단순히 허리나 어깨, 목 결림뿐만 아니라 위나 폐 등 신체기관들과도 상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척추가 바르지 못해 신체의 불균형이 오면 이는 다른 장기들이나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자세를 바로함으로써 신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만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좌식생활과 컴퓨터로 인해 사람들의 자세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만으로도 교정할 수 있다.

고씨는 “국민체조와 같은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자세교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카이로프랙틱이 아니더라도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배 기자

평생교육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모집

평생교육원(원장 안성수)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제1기 교육생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업은 한국어이론 수업 100시간, 한국어실습 20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구성된다.

지원 기준은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학의 경우 진학학기 69학기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이번 과정은 양성과정 교육시간을 85%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행되며, 등록금은 88

만원이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뤄진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평생교육원 행정실(754-2704)로 하면 된다.

강보배 기자

‘하늘의 땅, 몽골’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삶 되돌아봐

언론미디어센터 해외취재단, 지난 10일부터 4일간 몽골 취재

● 몽골인의 삶과 문화

광활한 초원을 삶의 무대로 삼는 몽골 유목민들. 그러나 겨울이면 살갓을 베는 추위가 물려와 한곳에 정착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몽골인들은 고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연을 정복하기 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길을 택했다. 가족들을 이끌고 초원을 찾아 헤매는 고행의 길. 그러나 이것이 몽골의 전부는 아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생활상이 변하고 있다. 언론미디어센터 해외취재단은 지난 10일부터 3박 4일간 울란바토르와 테를지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인들의 생활상과 재외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둘러봤다. 몽골 생활상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자.

유목민의 전통 가옥 '게르'와 부유층들의 신식 아파트

여전히 몽골에는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남아있다. 이들은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에서 생활한다. 게르는 나무골조에 양털 천막(펠트)을 덮은 집으로 단 2시간이면 쉽게 분해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초원을 찾아 일년에 2~4번 게르를 들고 이사한다.

도시 외곽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정착생활을 하면서도 게르를 집으로 이용한다. 기자는 테를지 국립공원 내에 게르를 지어 정착생활을 하는 가정에 방문했다. 집안에는 침대 등 가구는 물론 TV, 오디오를 비롯한 전자기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누워서 쉬고 있던 나란게렐(50) 아주머니는 기자가 방문하자 몽골 전통차인 '하르차이'와 '버르칙'(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몽골 과자)'을 내주었다.

나란게렐은 아주머니는 “이곳에 게르를 지어서 정착해 살고 있다”며 “새벽에 소의 젖을 짜고, 산에서 '네르스'라는 열매를 따다 시장에 내다 팔며 생활한다”고 말했다.

외곽을 벗어나 도시로 접어들면 신식 아파트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아파트는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고 서민들은 게르아일(나무로 만든 집)이나 게르에서 생활한다.

여전히 주식은 고기와 유제품 한국음식도 밥상에

유목민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이다. 특히 유목생활을 위해 오랜기간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음식이 많다. 말짚을 가죽부대에 담아 발효시킨 '아이락'을



테를지국립공원 내에 몽골 전통 이동식 천막집 '게르'를 짓고 생활하는 몽골의 아이들. 이곳에서 정착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벌거나 소의 젖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며 생활한다.

비슷해 소고기를 게르 밖에 걸어 두어 바람에 말린 육포도 있다. 정착생활을 하는 현대 몽골인들 역시 고기와 유제품을 주식으로 먹는다. 몽골의 슈퍼에 가보니 그들의 식생활이 쉽게 눈에 보였다. 각종 햄과 유제품이 한 벽면을 전부 메우고 있었다.

몽골에서는 초원에서 키우기 쉬운 소고기가 저렴하고 사료를 줘야하는 닭고기는 오히려 비싸다. 뜨겁게 달군 돌에 물을 부어 야채를 넣고 익힌 양고기 요리 '하르흐'은 축제 등 행사때 즐기는 별미다. 닭고기는 열이 많은 식품으로 몽골인들은 주로 겨울에만 즐긴다.

간체책(23)씨는 “여름에는 소고기를 많이 먹고 겨울에는 말고기가 열이 많기 때문에 즐겨 먹는다”며 “우리집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몽골 음식은 밀가루와 고기로 만드는 음식인 '고릿테수룩테허'”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한국음식 등 외국의 음식들도 몽골의 밥상에 자주 올라간다. 몽골은 내부 산업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음식도 외부의 존도가 높다. 슈퍼만 가도 한국의 김치, 라면, 참치 등을 비롯해 외국산 음식들이 즐비해 있다.

보드락마하(34)씨는 “몽골에 한국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도 많고 슈퍼에도 한국 등 외국에서 들어온 식재료들이 즐비하다”며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물가는 한국의 약 1.4배 평균 월급은 30-50만원

몽골은 1990년대 민주화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자원이 풍부 한 몽골에 투자를 하려는 해외자본이 밀려들면서 수도인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됐다.

몽골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약 300만명이 살고 있다. 이 중 1/3인 약 100만명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산다. 유목을 하던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지만 물가는 높고 월급은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 몽골은 대부분 물자를 수입에 의존해 운송비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

몽골의 여행사에서 일하는 박홍석 소장은 “몽골은 생활용품을 비롯한 대부분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편”이라며 “몽골 내부에서 생산되는 고기나 유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몽골 물가가 한국보다 1.4배 정도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월급은 물가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보드락마하씨는 “몽골의 평균 월급이 30

~50만원 수준”이라며 “생활이 힘들어 한국 등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몽골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가보면 몽골이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가득하고, 인구가 집중돼 늘상 교통대란을 겪는다. 거리에는 공사중인 건물과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다.

자이승전당대에서 몽골을 내려다보면 한견에는 웅장한 산맥이 있지만 한견에는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과 뿜뿜하게 들어찬 건물들이 보인다.

도시화가 진행되며 몽골에는 유목생활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와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가 섞여 있다.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점차 유목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예로부터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온 민족이었다. 초원이 사라지면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살 수 없고, 가축으로부터 생활자원을 얻어내는 유목민들도 살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몽골의 유목민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몽골 유목민들의 정신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의 몽골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귀중한 정신인 것 같다.

고용희 기자

몽골 샤머니즘 우리무속과 닮아

기독교서부터 라마교까지 종교도 다양

● 몽골인의 샤머니즘

모진 모래바람,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초원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인들. 하늘의 신과 교류를 통해 유목민들의 이동시기를 정하고 앞날을 예견하는 '샤먼'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샤머니즘은 몽골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여전히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헝허르 마을에서 몽골의 샤먼 '보우'를 만나 샤머니즘과 함께하는 몽골인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하늘의 할아버지신과 교류해 마을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헝허르마을의 샤먼 '보우'.

‘둥, 둥, 둥-’. 문밖으로 북소리가 새어나왔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웅얼거리듯 읊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깃털이 꽂힌 모자. 얼굴을 가리는 풍성한 실. 북과 춤으로 신을 부르는 ‘보우’가 하늘에 있는 신을 부르고 있었다. 잘게 찢어진 노랫소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즈음, 북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옛된 얼굴의 소녀에게 할아버지 신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신은 그 가문의 어머니 쪽 조상이라고 한다. 지팡이를 잡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보우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의자를 받쳐줬다. 또 사람들은 그에게 수태차(몽골 전통 우유차)와 담배도 건넸다. 보우는 얼굴을 덮은 실 사이로 담배연기를 빼끔 내뿜었다.

보우들이 섬기는 하늘에는 ‘하얀하늘’과 ‘검은하늘’이 있다고 한다. 하얀 하늘은 소원을 빌거나 치료를 원할 때 비는 하늘이고, 검은하늘은 나쁜 기운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비는 하늘이다.

보우는 어깨가 아픈 보드락마하(34)씨도 치료해줬다. 어깨를 마사지하고 일로 수태차를 뿌리며 기다란 줄로 어깨를 때리기도 했다. 기자들도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접은 상태로 자리에 앉았다. 보우는 기자들에게도 삶의 조언을 해줬다. 보드락마하씨는 마을사람들도 보우에게 찾아와 조언을 듣곤 한다고 설명했다.

“마을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항상 하늘의 신을 만나러 찾아와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꼭 돈을 내야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신을 모시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니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다녀가기도 합니다.”

보우가 마을에서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길잡이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몽골내에서는 샤머니즘보다 라마불교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검색포털 네이버 국가정보 안내에 따르면 몽골 내에서 라마교가 약 50%, 샤머니즘·그리스도교가 약 6%를 차지한다고 한다.

몽골 내에서 라마승에 대한 존경도 상당히 높지만 샤머니즘 또한 몽골인들의 삶 속에 절절히 배어있다. 대소사를 치를 때 길일을 받기도 하며 수술을 받을 때에도 방위를 따져서 수술받는 경우도 있다.

기자들에게 조언을 마치고 보우는 다시 북을 손에 들었다. ‘둥, 둥, 둥-’.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다. 몸을 흔들며 흥얼거리던 몽환적인 노랫가락이 점점 격정적으로 변하더니 곧 고요해졌다. 신이 하늘로 돌아갔다.

보우의 모자를 벗자 옛된 소녀가 나왔다. 소녀는 금방 잠에서 깨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방안 가득 경건함이 감돌았다. 유목생활 중 혹독한 한파와 가뭄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조언자. 보우는 몽골인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였다.

고용희 기자

불굴의 도전정신 실천하는 몽골 기업인 양윤호 동문(행정 86)

2001년 레미콘기업 설립... 몽골 100대 기업선정 도전정신으로 황무지 개척해 연매출 100억 돌파



조남철 몽골 MKI 레미콘 전무. 그는 MKI가 몽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에서 양윤호(행정학 90졸) 동문이 창업한 레미콘기업 MKI(Mongolia&Korea Industry)가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며 매년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MKI는 2008년 몽골경영자총연합회로부터 순수 한국인 투자기업으로는 최초로 ‘몽골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양윤호 동문은 특유의 집념과 추진력으로 몽골의 척박한 사업 환경을 개척해 지금의 MKI를 키워냈다. 이에 그는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정부로부터 ‘실크

로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몽골의 대표 레미콘전문기업으로 성장한 MKI이지만 설립 초기에는 몽골에 사업환경이 제대로 개척돼 있지 않고 한국과 문화가 많이 달라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해 발전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을 펼치기에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다. 몽골 내부에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물자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이면 물려오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기업도 아닌 신생기업이 사업 터전으로 택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지역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MKI는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고됨을 견뎌내야 했다. 지금의 성장은 오롯이 성실과 근면으로 일궈낸 산물이다.

조남철 MKI 전무는 “잠자는 시간을 죽여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했다”며 “아침 해 뜨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부지런해졌다”고 말했다.

다.

신상돈 MKI 이사는 “추석휴가를 못보내는 것은 물론 일주일 중 집에 이틀정도밖에 못들어갈 정도로 바쁘게 일했다”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MKI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MKI는 순수하게 한국인이 만든 기업인지라 몽골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였다. 문화를 모르면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MKI도 처음에는 몽골의 문화를 잘 몰라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다. MKI 한국인 직원들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몽골어를 완벽히 숙달하고 몽골사람들과 피부로 부딪히며 문화를 배워나갔다.

조남철 전무는 “몽골 매니저에게 일을 맡기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쪼개 언어를 배웠다”며 “몽골인들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실되게 다가가니 국적을 초월해 마음이 통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몽골 현지인들을 고용해 관리하는 일도 쉬운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유목민의 특성이 있어 도중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불신이 빈번히 일어났다.

조 전무는 “돈을 주면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고, 차에 넣어둔 기름마저 빼갈 정도로 도난문제도 심각했다”며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른 몽골인들을 채용해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솔선수범해 먼저 일을 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자 그들도 잘 따라와 줬다”고 말했다.

몽골인들과 함께 웃고 투닥투닥 부대끼며 이들은 어느덧 몽골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현지인이 다 됐다고 한다.

조 전무는 “비록 몽골에서는 일이 끝난 후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일 수는 없지만 한국에 가면 여지없이 몽골의 양고기가 생각난다”며 “그간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제는 제법 현지의 문화에 많이 녹아든 것 같다”고 말했다.

황무지 같던 몽골 사업현장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MKI는 성실함으로 무장하고 몽골인들의 문화



신상돈 몽골 MKI 레미콘 이사. 그는 MKI가 성실과 근면을 실천했기에 척박한 몽골의 사업환경을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를 이해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그들과 소통했다. 결국 MKI는 몽골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표 레미콘기업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MKI의 정신은 대학생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발을 디딘 도전정신.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고단함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열정.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이는 무모한 도전도 성공시키는 우직한 근면정신. 이는 성공의 진리가 아닐까.

고용희 기자



무론유설

김인중
생명공학부 교수

복적복적활동을 하면서 여름방학동안 읽은 책 중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지으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있다. 이 책이 전국 비소설분야 책판매 순위에서 오랫동안 1위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춘시절의 아픔과 고난, 고민은 내가 학창시절이었던 때에도 격렬한 불꽃으로 여전히 나의 가슴 한켠에 생채기로 남아 있다. 나의 인생 선배들이 더욱 처절한 시대를 견뎌온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대학생들 또한 내적인 전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춘의 시기에 아픔을 주는 요인들은 무척 다양하다. 학과성적, 이성, 등록금, 영어 공인시험성적 등등. 더욱이 스펙쌓기와 공무원이나 특수대학원 준비, 영어접수 올리느라 청춘의 시절을 보낸다.

아픔이나 고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어 중에 ‘광’이 있다. 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고독, 짐승(적), 적막, 모래, 바람, 추위, 폭염, 끝없는 지평선, 갈증, 도피, 고난, 실체 등이다.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 없을 때에도 자신이 처한 곳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이 나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줄 위로가 전혀 없는, 막막함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광야 가운데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단정 짓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위험을 넘어서 기회의 땅인 경우가 있다. 광야는 사람을 성숙시키고, 겸손케 하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예수나 석가모니, 스티븐잡스 회장,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속에는 광야가 존재한다. 광야를 거친 후의 위인들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광야가 없었다면 예수나 석가모니가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름으로도 기억되고 있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애플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광야라는 곳을 통과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자(History maker)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의 아들마저도 통과한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광야는 각자에게 부여된 최고의 기회이자 축복일 수 있다.

학창시절에 겪는 아픔과 고난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광야로서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닌 좁고 어려운 길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당장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뜨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연구에 재미를 느끼는 연구자로서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어른들과 학생들이 자꾸만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갑골육종(돌연변이체 유기를 통한 갑골종종 개발)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고, 갑골원과 실험실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듣게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는 신품종 육성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쉬운 길

을 택한다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새로운 갑골 품종을 개발하여 제주갑골의 역사를 바꾸는 연구자(history maker of citrus)로서의 꿈을 가진 도전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성인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유학대학이나 여성대학을 수강하는 7~80세가 넘으신 초로의 어르신이나 자녀교육과 직장일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배움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대학 교정을 거니는 즐거움에 미소 짓는 분들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있다. 왜 그분들은 편안함을 버리고 어려운 배움의 길을 다시 선택하였을까? 전공공부와 봉사,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쁘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왜 학생들은 성인교육자이면서도 평생교육원에서 거의 수강생으로서 볼 수 없을까? 나중에 아닌 지금하면 더 빨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텐데, 그것이 아쉽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고난의 광야는 다를 것이다. 오늘 내가 도전해야 하는 광야는 무엇일까?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패배자가 아닌 도전하는 승리자로서 말이다.



독자기고

김태현
연세대학교 4학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제주도는 말이나 뛰어들 곳이지 사람이 살 곳은 아니라는 뜻만 같았다. 제주는 흔히 ‘변방의 섬’이라 일컬어진다. 육상 면적도, 재정도 전국에서 고작 1%인 외딴 섬. 작년 한 뉴스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마저도 전국 1%로 집계돼 문화적으로도 척박한 곳임이 입증됐다.

지금에야 누구보다도 제주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이라 자부하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서울로 떠날 공리만 했었다. 여기에 남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로 대학 다니는 친구가 평일에도 주말에도 열심히 공연을 쫓아다니는 동안 제주도에 남은 나는 시청 대학



독자기고

김준
경원대학교 3학년

Whenever, Wherever, Whatever I should do, my best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의 낙방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 새해는 잔인했다. 계획했던 것들이 매번 틀어져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멘토이신 아버지께서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내 책상에 붙이고 가셨다. 거기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언제나 최선을 다해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는 이 문장이 ‘도망’이라는 비겁한 선택만을 생각하던 내게 ‘도전’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였다. ‘2011년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인턴십 연수생 선발 공고’ 바로 내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지체 어학 연습

밴쿠버에 가기 전 한달 동안 학교에서 자체 실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외국어교육원에서 이수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외국인 교수님들의 강의, 정보통신원에서 실시한 2주간의 정보화 교육, 유원회 원장님과 함께한 3주 동안의 캐나다 어학연수 교육으로 영어와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차츰 극복해 갔다. 네 분의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한 영어강의는 밴쿠버에서 4개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Cover letter 작성과 Interview에서의 공손한 영어 표현, 친구들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Spoken English, 당당하게 겁먹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는 자신감, 때론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예를 들어 분단국가인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나 한국의 실정)에 대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문화발전의 꿈과 기반조성에 관심을

로에서 술을 들이켜는 것밖엔 할 게 없었다. 문화생활이라고 해봤자 극장 나들이, 보너스로 일 년에 두어 번 열리는 공연정도였다. 그 친구는 공연을 보러가서 종종 전화를 걸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곤 했는데 지적거리는 소화가음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그러던 작년 어느 날부터가 학생회관 게시판에서 ‘BOOS의 친구들’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달마다 새로 바뀌는 포스터에는 치즈스테레오, 아폴로18, 갤럭시 익스프레스, 크라임넷, 게다가 인디계의 서태지와 불리며 싸구려 커피로 전국을 강타한 장기기가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다고 쓰여 있었다. BoosMusicRecord라는 제주도에 새로 생긴 인디레이블에서 순수하게 ‘제주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인프라 육성을 위해’ 기획한 공연이라고 했다. 드디

어 제주도에도 이런 공연이 열린구나. 그동안 문화적 갈증에 목말라하던 젊은 피들은 뜨겁게 환호했다.

그러다 올해 초 우연한 기회로 부스뮤직 레코드의 한 자리를 맡게 됐다. 봄에는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아 갑작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기도 했고, 6월에는 음악으로 강정을 지키자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나의 강정을 지켜줘’라는 기획공연도 진행했다. 흥대서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을 데려오는데 달 동안 8회에 걸쳐 기획된 공연이 4회만에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예매율이 (지나치게) 저조해 그 많은 경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흥행에 참패하니, 쏘박 망한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데 흔자 가기 속스러워서 못갔다’는 답변이 의외로 많았다. 물론(그 밴드들을) 몰

라서 못 온 경우가 더 많았지만 말이다. 말로는 ‘제주도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안돼’라면서 막상 밥상을 차려주니 손가락도 들지 못하는 이 경우가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요즘 부쩍 ‘흥대의 물라’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인디문화를 지칭하던 흥대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달한 상권이 흥대문화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지역’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가항공을 비롯한 이동수단의 발달로 제주도는 전과 같지 않게 접근성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곳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점점 더 본격적인 문화의 큰 물결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디 이런 흐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제주도의 문화적 소외감은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폭넓은 경험쌓기 기회가 된 밴쿠버 인턴십

밴쿠버 라이프의 시작

설레는 마음에 잠도 설치고 도착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입국심사를 마치자 낯설음, 설렘, 두려움 등의 온갖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공항에는 제주 개발공사에서 오신 문승원 대리가 나를 포함한 10명의 대학생들을 각자의 홈스테이 숙소로 안내했다. 처음 홈스테이로 가던 차 안에서 밴쿠버를 바라 보며 낯선 장소,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속에 흔차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기 시작하였다.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그 나라 현지인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하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소통의 오해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4개월 동안 거주하며 그 곳 홈스테이 가족에게 정이 많이 들었다. 눈빛과 몸짓이라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짐작중인인 Ral과 Danelle, 그들의 딸 Micha와 함께 보낸 시간이 지금도 아른거린다.

내가 머문 홈스테이 주소엔 다른 외국인들도 거주했다. housemate였던 Brazilian인 Michelangelo와 Japanese인 Amy, Germany인 Stephani까지 각국의 친구를 사귀고 한집에서 사는 것은 재밌는 경험이었다. Canadian, Filipino, Brazilian, Japanese, Germany, Korean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다.

Language School

밴쿠버에 도착한 다음 주부터 우리는

ILAC(International Language Academic of Canada)이라는 Language School에서 10주 동안 수학하게 되었다. 영미권 국가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영어 수업이라는 설렘과 마치 한 주만 이수하여도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은 기대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ILAC에서 실시한 Level Test 후에 반을 나누고, 새로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과 서로 인사도 하며 나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러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ILAC에서 10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영미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과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영어 공부지만 접근 방법의 차이가 달랐다. 물론 우리와 어순자체가 다른 영어 구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옳고 그를을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새로운 경험과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어 공부 방법을 터득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ILAC은 밴쿠버 Downtown 안에만 4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을 만큼 큰 학원이다. 학생 수가 매우 많고, 학생들의 국적 역시 매우 다양하다. 수업의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해 활동적인 수업을 추구한다는 점이 ILCA의 특징이다. 이는 각국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Working

ILAC에서 보낸 10주간의 어학연수 후 우리는 Intrax의 소개를 통하여 각자의 Volunteer work를 찾게 되었다. 내가 Interview하게 된 업체는 Wilderness Committee라는 NGO 단체로서 캐나다 전역의 자연과 야생생물, 해안선, 보존·보호

를 주로 하는 단체이다. 30,000명의 회원들과 40,000명의 후원자들이 이 단체를 지지해 주는 캐나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인데 내가 근무했던 Vancouver의 본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Toronto, Victoria, Winnipeg에도 지점을 갖고 있다.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부족한 영어 실력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 혹시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에 처음에 많이 경직되어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일어 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간단한 우편작업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기부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 엑셀을 이용한 문서작업까지 점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에 흥미도 들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아르바이트 경험과 간단한 사무보조를 통해 사무실 안에서의 분위기를 느껴 보았던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했던 사무보조일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었는데 캐나다에서 내가 일했던 곳은 모든 사람들이 격의없이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환경에 관한 일을 하는 NGO단체로서 그러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밴쿠버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격의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았다.

잊지 못할 밴쿠버의 4개월

처음 한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몇개월 산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밴쿠버에서의 특별한 4개월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도전’은 ‘실패’를 연재는 안고 있는 것이라며 피했던 과거가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번 경험으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특별한 경험을 얻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 내게 자신감을 심어준 밴쿠버에서의 이번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동문칼럼

사라진 대자보, 공론장의 아쉬움

1987년 4월3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 외벽을 비롯해 교내에 대자보(大字報)들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으로 시작하는 총여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는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자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가에 붙여진지 불과 몇시간 되지 않아 대학당국과 대학에 상주하는 경찰에 의해 긴급히 떼어졌습니다. 이를 작성한 총여학생회장은 다음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4.3진상규명의 변곡점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4.3 대자보’ 사건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고, 이 정도 내용 갖고 왜 그리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 암울했던 당시에는 매우 큰 일이었던 듯 합니다. 4.3이란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켰고, 정부를 비판하면 ‘유언비어 날포죄’로 잡아가곤 했으니까요.

대자보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당시 시국문제에 있어 청년학생들의 주장을 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대자보와 유인물, 크게 두가지입니다.

대자보는 중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 붙이는 대형의 게시문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대자보가 붙여질 때면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꼼꼼하게 읽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은 좋은 학생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금세 떼어져 버리곤 하니까요. 또 하나, 대자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나 유인물 있었습니다. 타자기 혹은 컴퓨터, 복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80년대에는 철판로 일본말인 ‘가리방’(등사판)을 굵은 후 시커먼 잉크를 부어 종이 한장 한장에 등사기로 마는 방식의 유인물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작업을 할 때면 손과 작업장 곳곳은 잉크 범벅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등사도구마저 없으면 똑같은 내용을 직접 일일이 수십장씩 써가며 만드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옛<제주대신문>에 보도되었던 1985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제주대 여학생 3명이 총선 유세장에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 유인물은 한장한장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유인물 살포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이사
(무역학과 86학번)

이야가 있습니다. 과거 제주대 교지인 <한라산>에도 수록됐던 ‘붉은 스웨터를 잡아라’라는 내용입니다. 1986년 어느날, 단과대학 옥상에서 한 여학생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붉은 스웨터를 입은 여학생’을 지목하고 대학에서 내려오는 버스까지 모두 검문했으나 끝내 그 여학생은 잡히지 않습니다. 스웨터는 검은 빨강과 내면은 다른 색을 가진 옷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를 돌려, 어쨌든 당시 대자보와 유인물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공론화의 장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자보가 붙여질 때마다, 유인물이 뿌려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이뤄집니다. ‘4.3 대자보’ 사건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내에서는 한달 넘도록 수업 거부를 하며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자보 한 장의 위력을 실감케 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대자보는 사라졌습니다. 대자보라는 커다란 벽면종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이 대치하면서 자연스러운 도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대자보와 함께 공론의 장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지역현안은 대학가의 주요 이슈에서 멀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가가 다시 들쭉날쭉해졌습니다. 모처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시킨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지만, 반값 등록금 투쟁은 ‘청년은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합니다. 제주에도 현안은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이후 6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경찰차를 막고, 쇠사슬로 자기 몸을 돌려 일구를 막았다. 강정마을에는 어떠한 폭력사태도, 질서위반 행위도 없었다. 단지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과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평화시위를 할 뿐이었다. 도대체 왜 그곳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었는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단지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려는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해전에 대비해 미리 해상병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해전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나 우리나라 국방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시멘트로 덮어가며 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조치라고 느껴진다.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단편만을 생각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그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정주민과 대립한지 수년이 지났다. 그동안 온갖 당근과 채적으로 그들을 설득해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이제와 그들과 진실한 대화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송진호 (정치외교학과 1)

강정마을을 왜 지켜야 하는가

독자기고

아직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점점 더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다. 처음엔 강정 마을 주민들만의 문제에서 이제는 여러 국내외 단체들까지 합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은 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걸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군기지가 처음 들어오려 할 때 마을에서 회의를 했었다. 하지만 이장이라는 사람이 동의 할 것 같은 사람 몇 명만 모아놓고 강정의 의견이라며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시작한 일, 역시 순탄할리가 없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물질적 보상은 받겠지만 정신적 피해는 아무런 많은 돈을 쥐도 치료되지 못한다. 일단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훈련 때마다 소음으로 고생할 것이고, 미군들이 들어오면 주변에 유충흡수가 많이 들어와서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를 깨게 만들 것이다. 이게 싫은 주민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이고, 미군이 떠날 때까지 예전의 고향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오키나와, 평택 대추리, 마항리의 평화 활동가들이 제주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다. 모두 그들이 겪었던 슬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강정의



김명지 기자 고훈희 기자 현성미 기자 김소영 기자

제주대신문 제작과정

정성들인 기사에만 독자는 감동하기에... '오늘도 뚝다'



편집회의



취재



기사작성 및 편집

취재거리 수집과 편집회의

편집회의는 모든 기자들이 모여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시간이다. 기자들은 편집회의를 위해 지역사회 이슈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타대학 신문에서 보도된 기획들을 참고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대학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이때 지인들의 제보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 편집회의에서는 선취배 서열을 막론하고 서로의 기획에 대해 칼날 같은 비판이 오간다.

취재

신발끈 바짝 매고, 이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시간이다. 기사는 발로 뚫어낸 만큼 질이 높아진다. 취재하러, 수업 들으러, 과제 챙기러 정신없이 바쁘다. 수업이 끝난 후 놀자고 유혹하는 친구에게 "인터뷰가 잡혀 있다"며 본의 아니게 연예인 포스를 풍기기도 한다. 기자들에게 스케줄을 정리하는 다이어리는 필수. 한학기가 끝나고 다이어리를 훑어보면 취재를 위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기자생활을 오래 할수록 미역이 불어나듯 인맥이 불어난다. 여기서 사교성과 말발은 덤이다.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던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니 능구렁이 같은 달변가가 됐다는 전설도 있다.

취재는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다.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아무리 기사를 읽고 공부해도 온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직접 그들과 대학을 청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쓴 글이 나온다(855호 보도).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

던 것들을 몸으로 부대끼며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것. 취재는 그런 것이다.

기사작성

금요일 오후 6시. 기사마감 시간이다. 바쁘게 휘갈겨 쓴 취재수첩을 뒤적이며 키보드를 두드린다. 기사를 쓰고 선배들의 게이트키팅까지 받다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린다.

대학생활을 하며 이토록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많은 대학생들이 과제나 시험을 볼 때가 아니면 글을 거의 쓰지 않는다. 기자들은 늘 기사작성의 고통에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지만, 신문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글쓰기가 눈에 띄게 느다.

컴퓨터 옆에는 밤샘작업을 함께할 주전부리들이 항상 있다. 자장면부터 과자, 라면, 치킨, 불닭까지. 늘어나는 뱃살에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밤중에 함께 먹는 음식은 너무 맛있다.

편집

제주대신문에서는 기자들이 직접 신문편집도 한다. 경향신문 등 도내의 언론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서울시스템이 개발한 신문편집 프로그램 'news plus'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지면을 만든다. 어느 기사가 뉴스가치가 더 높은지, 어떻게 편집하면 더 편하게 읽힐지. 편집을 하는 기자들의 머릿속은 고민으로 가득 찬다.

인쇄, 신문 발송

신문이 발간되는 수요일. 드디어 기자들이 빛을 보는 날이다. 완성된 신문은 캠퍼스 곳곳에 배포될 뿐만 아니라

대학 동문들과 각종 관공서, 타대학 신문사 등에 발송된다. 기자들은 손수 신문을 접어 발송을 보낸다.

완성된 신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천근만근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가끔 독자들이 기자들에게 '좋은 신문 만들어줘서 고맙다', '덕분에 대학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시큰 아려오는 콧등을 손으로 훑치고 멋쩍게 웃는다. 다시 신문을 만들 힘을 얻고 오늘도 취재수첩을 손에 든다.

고훈희 기자

<제주대신문 FAQ>

1.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제주대신문 편집국(본관 앞 대학원동 3층)에 오셔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세요. 지원자는 면접을 보고 칼럼 제출 또는 논술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글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더라도 입사 후 배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 시험기간에도 출근하나요?

시험기간에는 신문이 발간되지 않아요. 시험 전에는 출근도 하지 않죠. 덕분에 신문사 기자들 중 학점이 4점대인 이들도 많습니!

3. 학보사이니까 학내에서만 취재를 하나요?

대학과 지역사회 취재는 물론, 방학에는 해외까지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학내, 국내의 구분 없이 취재를 다니다보니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

● 제주대신문의 진실 혹은 거짓

누구나 불합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 혼잣말로 하면 '불평'이 되지만 글로 써서 공개하면 '비판'이 된다. 그런 점에서 기사는 맛있는 일을 꿈꾸지만 제주대신문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신문사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학내에 퍼져있는 제주대신문사에 대한 소문,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소문1. 제주대신문사 기자가 되면 개인 시간이 많이 뺏긴다?

거짓. 기자가 되면 취재며 기사작성이며 할 일이 많아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평일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고 게으른 습관으로 인해 낭비된 시간을 되찾게 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신문사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공강 시간을 백분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것이 가능하다.

소문2.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기 힘들다?

진실. 기자와 학생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스스로 박탈하겠다는 것이라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제주대신문사에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매학기 마다 장학금이 지급되고 매월 통장으로 원고료와 취재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소문3.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면 제주대신문사에 들어올 수 없다?

거짓. 태어날 때부터 펜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춤법부터 시작해 기사작성법, 취재방법, 사진찍는 방법까지 실

력있는 신문사 선배들이 일일이 지도해 준다. 방학 때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신문사에서 전액 지불해, 훌륭한 강사로부터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다. 글 쓰는 것이 여태껏 두려웠다면 신문사에 들어와 글쓰기 스킬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문4. 신문사활동 외의 자기계발할 수가 없다?

거짓. 기사작성법 교육도 좋고 신문사 장학금도 좋은데, 토익점수며 컴퓨터자격증, 해외여행 등과 같은 스펙경쟁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까봐 신문사에 들어오길 주저한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오히려 제주대신문사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기자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도서관 대신 신문에 남아 각자의 공부를 한다. 이곳에서 공부해 모든 기자들은 토익점수도 올리고 각종 자격증도 땀다. 또, 신문사에서 방학마다 해외취재의 기회를 제공해 성실한 기자라면 누구나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소문5. 언론사 취직에 유리하다?

진실. 제주대신문 기자출신인 선배님들 중에 KBS, MBC 등 유수의 언론사에 취업해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학보사 경험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사를 뽑을 때 언론사 면접관들은 학보사 출신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취재교육, 기사작성법 뿐만 아니라 실제 언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면을 제작하고 있는 것도 실무에 나갔을 때 유리한 점이다.

좋은 기회가 있어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회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대신문사는 제주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 도전과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제주대신문사 수습기자에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대신문사 활동으로 자기 인생의 변화도 이끌 수 있다.

현성미 기자

제주대학교 59기 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여행)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 제주대 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땁니다.

청춘 20대!

가슴뛰는 일상으로 비사자개반실패요?